

[국 어]

해설 위원: 오 대 혁 교수

본 문서 내용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공무원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
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문항 분석 >

유형	년도	2020년		2021년	
		난이도	문항수	난이도	문항수
국문법		상/중/하	2/3/5	상/중	1/3
어문규정		상/중/하	1/2/4	중/하	2/5
속담/한자		상/중/하	1/1/1	상/중/하	1/1/1
비문학		상/중/하	1/2/1	상/중/하	1/4/1
문학		중	1	상/중/하	2/1/2

< 총 평 >

2021년도 군무원 국어 시험은 많은 점에서 일반 행정직 국어 시험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20년도 기출 문제부터 시험지를 공개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일반 공무원 시험의 틀에 가까워진 것이다. 2020년도 비교해 보면 그 형태상의 변화는 몇 가지 나타난다.

1. 국문법 문제를 많이 줄였다.

2020년도에 국문법 10문제에서 이번에는 4문제만 출제했다. 국문법의 비중을 줄이는 경향은 일반 공무원 시험에도 유사한 형태라 하겠다.

2. 어문규정 문제는 여전히 강세다.

2020년도에도 7문제였고 2021년도 동일하다. 난도 상의 문제는 많지 않으며 기본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다.

3. 속담과 한자 문제는 2020년도 동일하게 3문제다.

한시를 제시하고 그 정서를 한자성어에서 찾아내는 고난도의 문제도 출제되었다.

4. 비문학 문제를 6문제를 출제하여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문학 독해나 쓰기 영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부족했던 수험생들은 어려웠을 수 있다.

5. 문학 문제가 2020년도에 1문제에서 이번에는 5문제나 출제했다.

난도 상의 문제도 2문제나 나온다.

난도 상의 문제는 분야별로 골고루 배치되었다. 대체로 일반 행정직 문제와 유사하면서도 25문제의 문항수에 한시나 고전시가, 한자 등이 결합되어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문제이다. 그렇지만 난도 상의 5문제를 빼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지만 그 난도 상이 5개나 끼어 있으니 심리적 난도는 높았을 것이다.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80점 정도를 넘어서면 합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나머지 과목을 잘 보았다면 70점대 중반도 합격은 가능할 것이다. (‘군수직’의 경우는 행정직군들과 달리 약간 낮은 합격 점수를 보이곤 한다. 70점만 넘더라도 합격 가능성 있다.)

< 향후 공부 방법 >

일반 행정직 시험 유형과는 군무원 국어 시험이 많이 다르다. 국문법과 어문규정 한자까지 골고루 배치되는 시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부하되, 모든 영역에서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 7. 24 .
오대혁 올림

1. [정답] ②

[한글맞춤법] 난도 下

활음조 현상에 따라 ‘내로라하는’이라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피하기>

- ① 같음하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 ③ 겹잡다: 겹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 ④ 부딪치다: 눈길이나 시선 따위가 마주치다.

2. [정답] ④

[띄어쓰기] 난도 下

‘커녕’은 보조사이므로 ‘뭉기는커녕’이라고 붙여 써야 옳다.

<오답 피하기>

- ① ‘모르는 척하고’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된다.
- ② ‘몇 등일지’는 수관형사와 단위성 의존명사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③ ‘읽는 데’는 관형어와 의존명사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3. [정답] ②

[한자-동음이의어] 난도 中

‘보판’에는 ‘保版’과 ‘補板’의 동음이의어가 있다. 문맥상 ‘보충상’과 어울려 ‘補(기울 보) 板(널빔 판)’을 쓴 ‘補板’이 맞음을 알 수 있다.

* 補(기울 보) 板(널빔 판): 마루 앞에 임시로 잇대어 만든 자리에 쓰이는 널조각.

* 保(지킬 보) 版(널 판): 인쇄판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 둬.

<오답 피하기>

- ① 毀(헐 훼손) 損(털 손, 버릴 손):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
- ③ 埋(묻을 매) 木(나무 목): 나무를 깎아서 만든 쟁기. 채목 따위의 갈라진 틈이나 구멍을 메우는 데 쓴다.
- ④ 象(코끼리 상) 嵌(산 깊을 감): 금속이나 도자기, 목재 따위의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겨서 그 속에 같은 모양의 금, 은, 보석, 뼈, 자개 따위를 박아 넣는 공예 기법. 또는 그 기법으로 만든 작품. 고대부터 동서양에서 두루 이용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상감 청자와 나전 칠기에서 크게 발달하였고, 오늘날에도 나전 칠기, 자개농, 도자기 따위에 이용하고 있다.

4. [정답] ④

[시제, 의미론, 품사론] 난도 中

‘현재 진행’의 형태가 되려면 동사여야 한다. ‘고르다’는 형용사이므로 ‘현재 진행’의 시제를 쓸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은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 ② ‘고르다, 고르니, 골라’와 같이 활용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 ③ ‘다의어’는 다양한 뜻을 함의하는 어휘를 말한다. ‘고르다’는 하나의 뜻만 제시되어 ‘다의어’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5. [정답] ③

[의미론] 난도 中

‘붓이나 약기의 줄 따위’라고 하여 ‘숨을 고르는’ 것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숨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라는 의미도 포함할 수 있어 ③이 답이 된다.

<오답 피하기>

- ① 고르다2의 「1」의 뜻으로 쓰임.
- ② 고르다3의 「2」의 뜻으로 쓰임.
- ④ 고르다1의 뜻으로 쓰임.

6. [정답] ①

[단락의 순서] 난도 中

(가) 단락에서 문학의 범위가 시대마다 달랐음을 지적하면서 한 문학이 포함하는 ‘문(文)’의 범위가 넓었음을 말했다. 이를 받아서 ‘보기’의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이 나중의 새로운 습관임을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주제단락이 되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는 형태라 하겠다.

7. [정답] ④

[한글맞춤법] 난도 下

모음이나 ‘ㄴ’ 받침 뒤의 ‘렬/률’은 항상 ‘열/율’로 써야 옳다. ‘백분율’이 맞는 표기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빼앗겼나’를 줄인 형태는 ‘뺏겼나’이다.
- ② ‘하루 동안’이라 띄어서 써야 옳다. * ‘하루 만에’도 띄어 쓴다.
- ③ ‘매 때마다’의 뜻을 갖는 경우는 ‘번번(番番)’이 맞다.
* 번번히: 1. 구김살이나 울퉁불퉁한 데가 없이 편편하고 번듯하게. 2. 생김새가 음전하고 미끈하게. 3. 물건 따위가 멀끔하여 보기도 괜찮고 제법 쓸 만하게.

8. [정답] ③

[쓰기-접속어] 난도 上

조금 억지스러운 문제를 내고 있다. 그래도 답은 해야 한다. 우선 ㉠에는 ‘그래서’나 ‘그리고’를 집어넣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선 내용과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과 ②는 답이 아니다. ㉠에는 전환의 접속어 ‘그런데’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면 선택지에서 ④가 답이어야 하므로 ㉡에 첨가의 접속어 ‘그리고’를 집어넣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앞의 내용과 다름을 뜻하는 ‘그러나’를 ㉠에 넣고, ㉡에는 결과적인 내용을 담는 데 적절한 인과의 접속어 ‘따라서’를 집어넣는 것이 적절하겠다.

9. [정답] ②

[외래어 표기법] 난도 中

‘시너(thinner), 알코올(alcohol)’이 맞다.

<오답 피하기>

- ① ‘리모컨(←remote control), 버튼(button)’이 맞다.
- ③ ‘코드(cord), 콘센트(←concentric plug)’가 맞다.
- ④ ‘선루프(sunroof), 스펀지(sponge)’가 맞다.

10. [정답] ②

[고전시가-가사] 난도 中

작품 전체가 제시되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다. 화자는 “柴扉에 거러 보고 亭子에 안자 보니 / 逍遙吟詠호야 山日이 寂寂흔디 / 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화자의 공간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작품 전체가 제시되지 않아 공간이동이 명확히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문제다.

<오답 피하기>

- ① ‘흥진에 묻힌 분’과 묻고 대답하는 형식은 아니다. 일종의 독백조다.
- ③ ‘이웃’에게 봄 구경을 제안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객관화하고 있다는 것은 비약이다.
- ④ 제시된 것만으로는 ‘서사-본사-결사’의 진행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음을 삽입하여 흥을 돋우는 대목도 보이지 않는다.

11. [정답] ②

[고전시가-정서] 난도 上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를 못내 계워 / 소리마다 嬌態로다”는 봄날의 아름다움에 새들이 교태를 부리며 울어댄다는 것이다. 이는 물아일체(物我一體)된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산수자연 속의 모든 존재들과 합일하는 흥겨움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②이다.

12. [정답] ①

[피동과 사동] 난도 中

‘(귀를) 기울이다’는 ‘정성이나 노력 따위를 한곳으로 모으다.’를 뜻한다. ‘기울다’의 피동사는 아니며, ‘기울게 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사동 표현이라 봄이 타당하다. 정확한 사동표현으로는 “비스듬하게 한쪽을 낮추거나 비뚤게 하다.”를 뜻하는 ‘기울이다’이다.

13. [정답] ④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난도 中

‘정릉’은 [정능]이라 발음이 나므로 ‘Jeongneung’이라 쓰는 것이 합당하다.

<오답 피하기>

- ① ‘ㅈ’는 ‘ae’로 써야 한다. ‘순대’는 ‘sundae’가 맞다.
- ② ‘ㄴ’라 표기된 것은 항상 ‘ni’로 적는다. ‘광희문’은 ‘Gwanghwi mun’이 맞다.
- ③ ‘왕십리’는 [왕심니]라 발음되므로 ‘Wangsimni’가 맞다.

14. [정답] ②

[문장부호규정] 난도 下

“열거된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낼 때는 중괄호를 쓴다.”는 규정에 따라 “모두가 건물 {예, 로, 까지} 달려갔다.”라고 했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 ③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대괄호를 쓴다.
- ④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대괄호를 쓴다.

15. [정답] ④

[문맥에 맞는 어휘] 난도 下

‘유행(流行)’은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짐.”을 뜻한다. ㉠은 전후 맥락상 ‘유행’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오답 피하기>

- ① 성행(盛行): 매우 성하게 유행함. 예) 초등학교까지 번진 과소비의 성행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 ② 편승(便乘): 1. 남이 타고 가는 차편을 얻어 탑. 2. 편선(便船)을 탑. 3. 세대나 남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거둬들여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기승(氣勝): 1. 성미가 억척스럽고 굳세어 좀처럼 굽히지 않음. 또는 그 성미. 2 기운이나 힘 따위가 성해서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음. 또는 그 기운이나 힘.

16. [정답] ③

[단락의 순서] 난도 中

- (가) 1930년대 뉴욕과 파리, 경성의 유행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임을 밝힘.
- (다) 서구에서 유행한 것이 일본을 거쳐 경성에서도 동시에 유행함.
- (나) ‘하지만’이라는 접속어를 써서 뉴욕과 경성의 유행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음을 밝힘. 경성의 모던걸이 입은 패션의 주변 풍경은 전근대적이었음을 밝힘.
- (마) 근대 이행의 절대적 시간을 넘어 조선에 근대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미디어 때문이다.
- (라) 미디어로서 신문과 라디오가 있어서 조선의 규방 여성이 근대화될 수 있었음.

17. [정답] ③

[독해-내용 파악] 난도 中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유행하던 파자마라는 ‘침의패션’은 곧바로 서울에서도 유행했다.……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는 속도는 너무나 빨라 거의 동시적이었다.”라는 진술을 통해 “③ 파자마 ‘침의패션’은 뉴욕과 할리우드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가 잘못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모던걸의 패션은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과 동일했다.: (나)의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경성의 모던걸이 입은 패션은 동일해도”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신문이나 라디오는 조선 사람이 속성 세계인이 되도록 해주었다.: (라)의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미디어를 통해 속성 세계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식민지 조선 여성은 근대적 환상과 그 이면의 불안을 함께 안고 있었다.: (라)의 “동시에 미디어는 식민지 조선 여성에게 세계적인 불안도 함께 안겨주었다. 자본주의적 근대의 환상과 그 이면의 불안을 동시에 던져 주었던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정답] ①

[고유어] 난도 上

‘비지땀’은 순우리말이 결합한 말로, “땀이 힘든 일을 할 때 쏟아져 내리는 땀.”을 가리킨다.

‘비지’는 구멍에서 압력에 의해 많이 나오는 모양인 ‘바질바질(비질비질→뻘뻘뻘뻘)’을 어원으로 하여 [비질+땀]→[비지땀;多汗] (한글맞춤법제28조 ㄹ탈락)이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각종 어원 사전에는 (1994, 3, 10 박일환=콩비지의 어원)을 인용해 콩비지처럼 나오는 땀이라고 등재되었는데 발음에 이끌린 건강부회한 해설이다.

<오답 피하기>

- ② 사랑채: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인 ‘사랑(舍廊)’에 고유어 ‘채’를 결합한 단어이다.
- ③ 쌍둥땀: 한 껍데기 속에 두 쪽이 들어 있는 땀. ‘쌍둥(雙童)’이 ‘한 어머니에게서 한꺼번에 태어난 두 아이.’를 뜻하는 한자어이다.
- ④ 장작불: 장작으로 피운 불. 통나무를 길쭉하게 잘라서 쪼갠 땔나무를 뜻하는 한자어 ‘장작(長斫)’에 고유어 ‘불’을 결합한 단어이다.

19. [정답] ④

[단어의 문맥적 의미] 난도 下

삼포의 과거 모습을 나타내는 ‘고기잡이, 감자, 나룻배’, 삼포의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어휘로 ‘신작로’가 쓰인 것이다. 작품의 맥락을 짚어보고 답해야 하는 문제다.

20. [정답] ③

[현대소설-주제] 난도 下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의 마지막 부분으로, 주인공이 찾아간 삼포가 옛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대화, 산업화에 따른 고향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한 현실을 드러내는 주제와 관련을 맺는 것은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황지우의 「빠아픈 후회」 중)라는 것이 적절하다.

21. [정답] ③

[한시의 정서, 한자성어] 난도 上

을지문덕의 한시 「여수장우중문(與隋將于仲文)」의 정서를 한자성어 문제로 출제했다.

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

그대의 귀신같은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

신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지리를 통달했구나.

戰勝功既高(전승공기고)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知足願云止(지족원운지)

만족함을 알고 그만 돌아가는 것이 어떠하리오.

화자는 득의에 차서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만족함을 알고 그만 돌아가라고 하고 있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은 ‘득의 만면’이 가장 적절하다.

* 得(얻을 득) 意(뜻 의) 滿(찰 만) 面(낫 면):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기쁜 표정이 얼굴에 가득함.

<오답 피하기>

- ① 悠(멀 유) 悠(멀 유) 自(스스로 자) 適(갈 적):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
- ② 戀(사모할 연) 戀(사모할 연) 不(아니 불) 忘(잊을 망): 그리워서 잊지 못함. * 연연하다(戀戀하다): 집착하여 미련을 가진다. 애뜻하게 그림다
- ④ 山(되 산) 紫(자줏빛 자) 水(물 수) 明(밝을 명): 산은 자줏빛이고 물은 맑다는 뜻으로, 경치가 아름다움을 이르는 말.

22. [정답] ①

[한자, 속담] 난도 下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①이 가장 적절하다.

뒷부분의 “부잣집과 사돈을 맺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었다.”와 연결하면 ①이 답이 됨을 알 수 있다.

*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감히 청하지는 못할 일이나 본래부터 간절히 바란다.

不: 아닐 불, 敢: 감히 감, 請: 청할 청, 固: 굳을 고, 所: 바 소, 願: 원할 원

<오답 피하기>

- ②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기본이 되는 것보다 덧붙이는 것이 더 많거나 큰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 주고 감정을 쌓지 않아야 한다는 말.
- ④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

23. [정답] ①

[현대시] 난도 上

제목인 ‘완화삼(玩花衫)’은 ‘선비의 소매적삼에 꽃잎이 젖어든 것을 감상하는 것’을 가리킨다. 박목월의 시 「나그네」가 이 작품에 대한 화답시이다. 이 작품에도 시 「나그네」와 같이 나그네가 등장하고, 산촌의 배경이 보이는데, 화자는 나그네의 길 떠남과 구름의 흐름 그리고 물길의 심상을 융합하여 정처 없이 유랑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 유랑의 의미는 식민지 시대의 뿌리가 뽑힌 한국인상, 또는 고향을 벗어나 자유로이 떠나고 싶은 지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선비의 풍류스러운 맛을 완화삼이라는 긴 적삼에서 풍기는 넉넉함의 의미와 결합시켰으며, “술 먹는 마을의 저녁노을”을 배치, 박목월의 「나그네」와 정서적 일체감을 이루어낸다. 화자는 달빛에 젖으며 밤길을 걸어 떠나는 나그네의 “한 많음”으로 작품을 마무리했다. 이는 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정신적 고뇌와 시적 감성, 섬세한 화자의 관찰이 어울려 있음을 보인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오답 피하기>

- ② 서정적 자아가 지켜보는 세계가 ‘마을’로 정착하고자 하는 공간은 아니다.
- ③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자유로운 존재로 또는 식민지 시대 뿌리 뽑힌 한국인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려는 의지라는 것은 확대해석한 것이다.
- ④ ‘한 많음’은 ‘민중적 삶 속’에 구현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정신적 고뇌와 시적 감성을 드러낸 것이라 보아야 옳다.

24. [정답] ①

[표준발음법] 난도 下

‘마천루(摩天樓)’는 유음화가 벌어져 [마철루]라고 발음해야 옳다. * 마천루: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아주 높은 고층 건물.

<오답 피하기>

- ② 공권력(公權力)[공편력]: 세 음절에서 앞의 두 음절이 하나의 단어로 사용될 때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 ③ 생산력(生產力)[생산력]: 세 음절에서 앞의 두 음절이 하나의 단어로 사용될 때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 ④ 결단력(決斷力)[결판력]: 세 음절에서 앞의 두 음절이 하나의 단어로 사용될 때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25. [정답] ②

[독해-중심생각] 난도 中

첫 단락의 “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전략’이다. 지금이야말로 세계 시장에 우리의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주제문과 “문화예술의 시대를 맞은 오늘날, 우리가 먹거리로 삼을 수 있고 상품화할 수 있는 바탕들이 다 갖추어진 유전자들이다. 선진이 선진이고 후진이 후진이면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선진이 후진 되고 후진이 선진 될 때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법이다. 우리 앞에 그런 전환점이 놓여 있다.”라는 진술 등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찬 포부”를 주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